

자료 활용,  
이렇게 하자

— 오프라인 자료 활용법—

원 만 회\_학부대학 의사소통교육센터



# Contents .....

01 학술적 글쓰기에서 참고 자료는 왜 중요한 것일까?	3
02 참고 자료의 이용은 창의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	4
03 참고 자료는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5
04 자료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
05 인용(引用)이란 무엇인가?	16
06 자료의 오용이란 무엇인가?	20



## 01

### 학술적 글쓰기에서 참고 자료는 왜 중요한 것일까?



**학술적 글쓰기는 요리와 같다.** 실제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레시피에 맞춰 조리할 있도록 다듬어진 좋은 재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생이 수행할 '학술적 글쓰기' 도 이와 유사하다. 맛있는 요리를 위해서 좋은 요리사 뿐 아니라 좋은 재료가 필수적이듯이,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서도 글을 쓰는 이의 능력과 자질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글 재료가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는 학술적 글의 재료이다.** 학술적 글은 저자의 지적 창조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주로 중요한 학문적 주제나 문제를 다루며, 이것들과 관련해서는 앞선 연구나 이론들, 견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체로 여러 종류의 문헌 텍스트를 통해 다른 탐구자들 혹은 후학들에게 전해진다. 이 문헌 텍스트들은 학술적 글쓰기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더없이 좋은 '참고 자료' 이며, 좋은 탐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 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는 손질 없이 사용될 수 없다.** 재료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해서 요리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재료의 선별과 손질 그리고 방식에 맞는 조리를 거쳐야 맛있는 요리는 탄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글의 재료인 참고 자료 역시 선별되고 글 내의 역할에 맞게 손질되어야 글의 구조에 사용될 수 있다. 참고자료가 올바르게 활용되려면, 자료의 선별과 손질 그리고 사용에 대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글쓰기의 레시피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가이드북은 만들어 졌다. 가이드북의 레시피를 따라 자료의 선별 방법, 자료의 구체적 활용 방법, 자료의 올바른 인용 방법 그리고 자료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 02

## 참고 자료의 이용은 창의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가?



창의적인 주장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가 창의적일 수 있으려면, 다루려는 주제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담론들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체벌은 정당한가?' 라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학술적 글을 쓴다고 해보자. 많은 경우 이 글을 자신의 학교 경험에 의존하여 쓰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글은 극히 한정된 근거나 일반적인 상황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뻔한 글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주장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창의적이고 설득적인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체벌의 정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왜 체벌을 하려고 하는지, 체벌의 교육적 효과는 있는지, 그 교육적 효과는 무엇인지, 체벌이 다른 방식보다 효과적인 교육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교육 방법론, 아동 심리학 그리고 철학 교육론 등의 담론에서 체벌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각적인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시하는 글은 일반적으로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주장이나 입장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 03

## 참고 자료는 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참고자료는 주로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참고자료는 글 내에서 일종의 근거의 기능을 수행한다. 근거가 충분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나의 주장이 설득적일 수 있다. 따라서 근거로 사용되는 참고자료는 신빙성이 높고 권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참고자료의 쓰임새가 항상 친편일률적이지는 않다. 참고자료는 때로 설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참고자료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은 참고자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 성격에 따른 참고 자료의 구분

자료의 구분	자료의 종류
1차 자료	단행본에 기록된 사실적 내용 혹은 사실을 기록한 시청각 자료 통계자료 및 측정자료(도표나 그래프) 어떤 사건에 대한 경험의 간략한 기록(목적담이나 증언)
2차 자료	특정 주제에 관한 입장 및 이 입장의 정당화 논증 특정 주제의 논의에 사용되는 개념, 용어, 이론

표에서 볼 수 있듯, 1차 자료는 사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자료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라 부르는 것은 '해석' 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1차 자료로 구분되는 사실적 데이터들은 해석이 배제되어 있는 객관적 사실 자료를 의미한다. 1차 자료가 해석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는 주로 '설명' 에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2차 자료는 해석을 제공해주는 자료이다. 그래서 사실적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이에 대해 일정한 입장을 제시하는 자료라면, 이 자료는 2차 자료에 해당한다. 2차 자료는 해석과 입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데 활용된다. 그래서 2차 자료는 주로 '설득' 에 사용된다.

### • 글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자료의 구분

그렇지만 글 내에서 수행하는 자료의 역할에 따라 자료는 달리 구분될 수 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는 하지만, 1차 자료는 설명에, 2차 자료는 설득에 사용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1차 자료는 1차 자료로만, 2차 자료는 2차 자료로만 사용된다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자료의 분류가 전공 분야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나 맥락에 따라 같은 자료가 1차 자료의 역할로도 2차 자료의 역할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가정해 본 두 예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예 11** 홍길동,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법률적 해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예 12** 전우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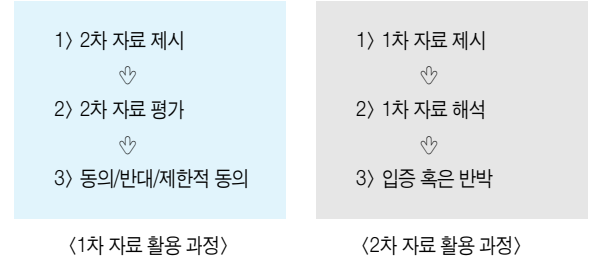
〈목차〉

1. 정치적 해석
2. 역사적 해석
3. 법률적 해석
- 3-1. 홍길동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법률적 해석」의 경우

【예 1】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 홍길동이라는 저자가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논문이다. 이 논문은 사실로서의 사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의 구분에 따르면, 2차 자료이다. 그런데 이 논문이 【예 2】에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입장 중 한 입장의 예로 사용되고 있다. 홍길동의 논문은 전우치의 논문 내에서 하나의 사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구분은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이다.

## 04

### 자료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 자료는 사실적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1차 자료의 해석은 글을 쓰는 사람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되거나 자신과 다른 주장을 직·간접적으로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2차 자료가 활용되는 과정을 알아보자. 2차 자료는 이미 해석된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2차 자료는 1차 자료처럼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해석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며, 이 평가는 자신의 입장으로 세워진다. 입장은 해석된 내용의 평가에 따라 해석에 대한 동의, 제한적 동의 혹은 반대로 나뉘게 된다.

자료의 해석과 평가는 자료 활용의 시작일 뿐이다. 자료 활용은 이 해석과 평가가 글 속에서 실제로 표현되어 본격화된다. 그런데 해석과 평가는 글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일까? 해석과 평가의 역할은 분명 다르다. 물론 해석과 평가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역할은 글로 표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할이 다르고, 이것들이 각각 표현되어야 한다면, 자료는 그것이 글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리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료는 그것이 글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자료의 역할에 따른 서술 방식을 알아보자.

• 자료의 역할에 따른 서술 방식

자료의 구분	서술 방식	
1차 자료	이러저러한 점들(평가된 자료)은 ~한 입장을 지지(혹은 반박)한다.	
2차 자료	동의	~는 이러저러한 점에서 옳다(혹은 받아들일만하다). 따라서 ~하다.
	반대	~는 이러저러한 점에서 옳지 않다(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하다.
	제한적 동의	~는 옳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기도 하다.", “~을 제외한다면 받아들일만하다.

제시된 서술 방식은 일반적인 예일 뿐이란 걸 유념하자. 서술을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서술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효과적인 서술 방식을 여러모로 시도하여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자. 사실 방법은 쉽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의 실제 적용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자료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과 친구가 많다는 것이 다르듯,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료를 잘 활용하고 싶어 한다. 자료의 활용 없이는 주장이나 입장을 세우는 것이나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료를 잘 활용하고 싶어도 그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곤 한다. 하지만 지성적 능력이 떨어져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여러분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은 다만 훈련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자료의 활용은 그 방법을 알고 익히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 이제 실습에 들어가 보자.



[예시 사례 ①] - 자료에 대해 자신의 입장 세우기

민주주의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던 시우는 당당 교수로부터 4·19 혁명을 주제로 하는 기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시우는 4·19 혁명에 대해 여러모로 고민하다가 ‘4·19 혁명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현안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자료 수집하기

시우는 먼저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4·19 혁명의 원인이 언급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2) 자료 분석하기

시우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나는 4·19 혁명의 원인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불만 집결이라는 입장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다른 하나는 해방 이후 고조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4·19 혁명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입장이었다. 시우는 이 두 입장 모두에 동의하지만, 후자의 입장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하였다.

3) 생각을 심화하기

시우는 해방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된 것은 해방 보다 좀 더 근원적인 원인에 기인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4) 입장 세우기

시우는 식민지 시기의 일제의 억압과 핍박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우리의 자유는 침해되었고, 이렇게 침해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이를 통해 성장한 민주화 의식이 해방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고조시킨 토대라고 시우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우는 4·19 혁명의 근본적 원인은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성장한 민주화 의식이라는 입장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시우는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짧은 개요를 작성하였다.

### 〈연구 주제〉

①많은 사회학자들은 4·19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당시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집결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사회학자들의 **이러한 견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19 혁명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에는 민중들의 불만이 집결된 것 이외에도 그 사건에 영향을 주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는 참고자료들 가운데 해방 이후 고조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4·19혁명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제시**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만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근본적으로 식민지시기를 겪으며 성장한 민주화 의식에 기반 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식민지 시기동안 일제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침해된 자유에 대한 갈망과 이를 통해 성장한 민주화 의식이야말로 4·19 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들 중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 〈시우의 개요 해설〉

우리는 이 개요의 ㉠과 ㉡에서 시우가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한 주장이 제시된 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 ㉣에서 그 자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시우는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들에 대해 동의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우는 4·19 혁명의 원인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집결되었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시우는 4·19 혁명의 추가적 원인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동의한다. 물론 시우는 해방 이후 고조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추가적 원인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지만, 시우가 보기에 해방 후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식민지시기에 성장한 민주화 의식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우는 자신의 입장을 “~는 옳다. 하지만 ~이기도 하다.”고 서술한다. 이렇게 해서 시우는 4·19 혁명이 부정선거에 대한 민중의 불만 집결이라는 기존의 주장 이외에 식민지시기를 통해 성장한 민주화 의식을 추가하여 보완하고자 한다(㉣). 이처럼 **다각적 검토와 심층적 분석을 통해** 기존의 주장들이나 견해들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수정하는 작업은 보고서에 쓸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 [예시 사례 ②]- 다양하고 적절한 자료의 활용

기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우 계획서의 나머지 부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자.

#### 1) 논의 틀 정하기

시우는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수용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시우는 전체 논의를 심화하는 형태로 구성하고자 한다.

현상적 원인(부정선거)



근본적 원인(식민지시기에 성장한 민주화 의식)

#### 2) 논의 단계에 알맞은 자료 정하기

시우는 현상적 원인에서 근본적 원인으로 심화되는 논의 틀을 정했기 때문에, **논의 진행 순서에 알맞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 활용을** 계획한다.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작성된 계획서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연구 방법〉

나는 일단 3·15 부정선거 이후 전개된 시우에 관한 ①**통계 자료 및 당시의 기사**들을 인용하여 4·19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민중들의 고조된 불만이 혁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고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4·19 혁명이 지니는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야할 방향을 두고 전개된 사회 각층의 움직임들이 4·19 혁명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 즉 당시의 사회경제적 배경**들을 언급할 것이다. 특히, 4·19 혁명이 표방했던 1차적 가치와 의의가 민주주의 사회 건설이었다는 사실을 짚어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식민지시기 동안에 전개되었던 해방 운동들이 민족주의적 성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었음을 들어 “민주주의로서의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차용할 것이다. 또한 식민지시기에 억눌린 우리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민주화 의식 고취로 연장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할 것이다. 실례로 ㉡**임시정부수립 및 여러 독립 운동 연설문** 등은 세계의 민주화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역시 조국 해방 및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㉔4·19 혁명의 상황과 다른 나라들의 민주화 과정을 비교하면서 민주주의의 민족주의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가치들이긴 하나, 민주주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민족주의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그런 다음, 일제의 강점에서 해방된 이후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성장시켜야만 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짚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㉔해방 이후의 기사 및 잡지들에서 사회 인사들의 주요 주장 및 세부내용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와 근거들을 토대로 4·19 혁명이 식민지시기 동안 고조된 민주화 의식에 적잖이 영향을 받아 일어난 운동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시우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계획하고 있다. 먼저 시우가 사용하려는 통계자료, 기사들 그리고 연설문(㉑, ㉒)은 사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1차 자료이다. 시우는 이 자료를 통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가 상호 밀접한 관련 하에 성장하였고, 식민지시기를 통해 우리의 민주화 의식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다른 나라와의 비교(㉓)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또한 시우가 사용하려는 해방 이후의 기사 및 잡지들(㉔)은 2차 자료로서, 이 자료는 식민지시기에 성장한 민주화 의식이 4·19 혁명의 또 다른 원인이라는 시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배우는 단계의 글이더라도 여러분의 글이 단지 참고자료에 있는 남의 생각이나 견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위의 예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특히 참고자료가 자신의 입장을 세우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머릿속에 깊이 각인하도록 하자. 자신만의 견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참고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자. 그리고 다각적 검토에 만족하지 말고, 이 검토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자신만의 입장이 세워지면, 이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의 순서와 틀을 정하고, 각 단계에 맞는 참고 자료 활용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물론 이것만으로 완성된 글을 작성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을 한 편의 글로 완성시키려면, 이

러한 개요와 구조를 토대로 자신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하고, 참고자료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배치하고 치밀하게 조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두자.

### • 참고 자료 수정하기

자료를 활용할 때, '자료가 다 거기에서 거기지'란 식의 안일한 태도는 반드시 버려야 한다. 자료의 활용은 글의 설득력과 직결된다. 여러분이 어떤 글을 읽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그 글이 신뢰하지 못할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보자. 과연 여러분들은 그 글의 입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글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는 믿을 만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이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활용하려고 하는 자료가 신뢰할만한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양질의 자료만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료의 수정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위에 언급된 사례에서 시우가 4·19 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고자료를 사용한다고 해보자.

- ㉑ 4·19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개인 웹 사이트에 올려진 4·19 혁명에 관한 소견
- ㉒ 4·19 혁명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들: 위키피디아 검색글 및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들
- ㉓ 식민지시기 전개된 독립운동 노선들: 친일단체에서 편집한 '반일운동 단체 소개'
- ㉔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4·19 혁명 비교: 1980년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요약본

이 자료들은 대부분 자료로서의 권위와 공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왜 그러한 것인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자.

〈㉑과 ㉒의 경우〉 이 자료들의 내용은 전문가가 썼거나 감수한 자료가 아니어서 참고자료로서의 충분한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㉞의 경우〉 이 자료가 편향적이어서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㉟의 경우〉 이 자료는 특정 시점의 연구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성을 얻기 힘들다. 게다가 요약본만으로는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권위와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자료를 근거로 논증된 주장은 결코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주장을 포함하는 글은 당연히 설득력과 설명력을 가질 수도 없다. 설득력과 설명력을 갖춘 글을 쓰려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까닭에 모든 학술적 글의 필자들은 다양한 자료들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판단해 내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능력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학술 활동을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러나 이 사고의 능력이 배양된 후에만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당교수가 제시한 읽기 문헌 목록들을 검토하면, 보다 쉽게 신뢰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의 과정 속에서 비판적 사고도 함께 훈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학술 자료 분류〉

- ㉠ 최신의 표준적 연구 도서 : 세부 전공 분야의 최근 연구논문에 사용된 단행본 및 연구논문의 참고문헌 목록
- ㉡ 학술연구논문 : 대중잡지가 아닌 세부 분야의 학자들이 읽는 저널에 실린 글
- ㉢ 학술 데이터(data)의 편찬물 : 세부 분야에서 최신 지식을 반영하는 역사적 또는 통계적인 편찬물

이 자료들은 대체로 전문적이며 정확하고 공정한 연구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료들은 학술 공동체에서 신뢰하여 사용된다. 인터

넷 포털을 통한 자료 검색이 일반화되고 있는 편이지만, 학술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전문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료들이 제공하는 참고문헌 등을 참조한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의 참고자료를 수정해보도록 하자.

### 〈수정 전〉

- ㉠ 4·19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개인 웹 사이트에 올려진 4·19 혁명에 관한 소견
- ㉡ 4·19 혁명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들: 위키피디아 검색글 및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들
- ㉢ 식민지시기 전개된 독립운동 노선들: 친일단체에서 편집한 ‘반일운동 단체 소개글’
- ㉣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4·19 혁명 비교: 1980년대에 게재된 연구 논문 요약본



### 〈수정 후〉

- ㉠ 4·19 혁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4·19 혁명 공식 웹 사이트 정보 및 전문연구논문
- ㉡ 4·19 혁명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들: 당시의 여러 신문기사 및 단행본
- ㉢ 식민지시기 전개된 독립운동 노선들: 대표적인 독립운동 단체의 연설문
- ㉣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과 4·19 혁명 비교: 이에 관련된 단행본 및 연구 논문

이제 학술 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을 참조하면, 신뢰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성의 강조가 대중적 글이나 일반적인 웹 자료를 폄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다.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대중적 글도 꽤 많으며, 웹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보고서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적 글이나 일반 웹 검색 자료들은 상식적이거나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만 사용되어야지, 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은 무척 위험한 일이다. 특히 웹 정보들은 좋은 정보만큼이나 나쁜 정보를 제공할뿐더러 자료의 출처나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자.





참고자료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내가 참고하는 자료는 누군가의 노력하고 숙고하여 내놓은 결과물이다. 그래서 내가 참고한 자료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자료가 '남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료를 나의 글에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를 '나의 것'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남의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태도이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의 글에 사용된 남의 자료가 내 것이 아니라고 밝혀야 한다. 간단히 말해 자료의 출처를 밝히면, 나의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인용'이라 한다.

### • 인용은 왜 필요한가?

#### 1) 인용을 통해 자료 집필자의 노고 인정하기

글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타인의 생각을 참조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인 학술적 글을 쓸 때에는 연구자의 윤리가 더욱 강조된다.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윤리는 타인의 창조적 결과에 대한 인정이며, 이 인정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2) 인용을 통해 독자의 권리 충족시키기

글은 독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은 자신들이 읽는 글에 대한 검증의 권리를 갖는다. 독자들의 검증에는 글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글에 활용된 자료의 정당성과 적절성의 검토가 포함된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은 독자들의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자신이 활용한 자료에 대한 인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 3) 인용을 통해 자기 계발하기

인용을 철저히 하게 되면, 자신의 글이 얼마나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다. 물론 글을 쓰면서 타인의 생각을 끌어들이고, 특히 학술적 글은 그러한 경향이 매우 강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글이 타인의 생각을 단지 연결하거나 짜깁기하여 작성될 수는 없다. 그러한 글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나친 인용이 발견된다면, 스스로 자신의 글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논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보는 훈련을 하게 되며, 이와 동시에 글쓰기 능력뿐만 아니라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는 훈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 인용은 언제 하는가?

#### 1) 사실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통계수치나 그림 자료와 같은 사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들은 확실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어 사용의 빈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자료들을 사용하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 자료도 여타의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그 출처를 반드시 인용을 통해 밝혀야 한다. 또한 사실 자료들은 시기에 매우 민감할 수 있어, 자료의 출처에 더하여 자료의 발표 시기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널리 알려진 사실을 어딘가에서 가져다 쓸 경우 역시 반드시 인용을 해야 한다. 사실 자료를 인용하게 되면,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독자가 필요에 따라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 2) 타인의 견해를 이용하는 경우

글을 쓰면서 타인의 견해를 참조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특히 어떤 사안에 대한 타인의 특정한 주장이나 해석 그리고 근거들은 활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자신의 글에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자신의 표현으로 풀어쓰는 간접적 사용의 경우 인용이 간과되기 쉽다. **간접적이든 혹은 직접적이든 타인의 견해를 참조하면서 인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다. 또한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글에 참조하면서 그에 따른 인용을 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무이자 독자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독자는 참조된 견해와 글쓴이의 견해를 비교·검토함으로써 글 내용의 올바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타인 글의 논의 틀을 이용하는 경우

흔히 인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참조할 경우에만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통계자료와 같은 사실 자료나 타인의 견해뿐만 아니라 논의 구조나 전략 그리고 논증 방식과 같은 타인의 글이 갖추고 있는 논의 틀을 차용하는 경우에도 인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 **논의 틀 역시 타인의 창조적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틀을 차용하면서 인용하지 않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는 비윤리적 행위임을 명심하자.**

### 4) 내용을 압축적으로 요약하여 참조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타인의 글을 스스로 요약하여 참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요약에서 참조한 글의 특정 용어나 개념을 사용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특히 요약된 내용은 독자가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과 정확성을 검증해 봐야만 하는 것이어서 인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 • 인용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 학술 공동체에 관련 자료 소개하기

우리가 인용의 필요성에서 보았듯, 인용은 우선 '본 연구자가 이 견해(또는 표현이나 정보)를 다음과 같은 곳에서 찾았으니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인용은 더 나아가 '인용된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더 연구하고자 한다면, 거기서 인용된 부분 외에 전체 부분과 관련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인용은 검증의 차원을 넘어 학술 공동체에 속한 독자들 또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2) 자신의 논증 보강하기

**인용은 자신의 논증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인용되는 자료의 내용은 나의 입장이거나 내가 동조하는 타인의 입장을 지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거나 타인의 견해를 지지 혹은 반박하는 근거로 어떤 학자의 자료를 인용한다면, 이것은 '이 학자의 견해는 누구나 인정할 만큼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 견해는 내가 이러한 견해를 갖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어떤 자료가 갖고 있는 견해를 지지하거나 특정한 입장을 취할 때,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한다면, 이것은 '이러한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만의 특이한 견해이거나 성급한 가정은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우리는 특정한 내용의 인용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들을 학문적으로 공고하게 할 수 있다.**



자료의 올바르게 못한 사용을 일러 흔히 자료의 오용이라 부른다. 자료를 자료로써 사용하는 것이 자료의 올바른 사용이라면, 자료의 오용은 결국 자료를 자료로써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통계 수치나 실험 결과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조작, 자료 내용의 의도적 왜곡 그리고 타인의 자료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표절 등은 모두 자료를 자료로써 사용하지 않는 오용의 사례들이다. 이 중 표절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자료의 오용 사례로 꼽힌다.

### • 표절은 왜 심각한 문제인가?

우리가 글쓰기에 활용하는 자료들은 대개 문서화된 학술 자료들이다. 문서화된 학술 자료들은 어떤 학술 연구자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그의 생각은 그의 것이며, 그의 생각을 담아낸 자료는 전적으로 그의 재산이다. 그런데 이 재산은 여타의 일반적 재산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재산은 그가 직접 생산해 내거나 고안해 낸 무형의 결과물로서 개인의 지적 재산이다. 또한 학술 자료가 개인의 지적 재산이지만, 이 재산의 사용이 그것의 생산자에게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 재산은 일반 사용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자신에게도 사용상의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함께 요구한다. 표절의 심각성은 이 재산의 이러한 복잡한 성격에서 기인한다. **표절은 지적 재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학술 자료라는 생산물은 단기간에 딱딱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술 자료가 담아내고 있는 생각들은 종종 몇 년간의 숙련과 연구 그리고 숙고를 요하는 매우 현신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술 연구자가 기대하는 보상이란 그들인 수고와 생각의 독창성을 학술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표절은 이 학술 연구자에게 응당 주어져야 할 보상을 은밀하게 가로채는 행위**이

며, **이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떤 책에서 특정한 생각을 빌려왔음에도 그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척 하는 것은 그 저자가 받아야 할 대가를 뺀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그 책의 저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떨까? 아무리 관대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가 강탈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또한 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권리가 존중되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인정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학술적 성과물이 학술 공동체의 공동 자산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지만 성과물의 소유권이 포기되거나 공동 소유로 전환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술적 성과물이 학술 공동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그 사용의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학술 활동을 공동 탐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하곤 한다. **학문의 발전이란 실제로 이러한 공동 탐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공동 탐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범이 지켜져야 한다.** 그것은 타인의 연구 성과물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이 '윤리적인'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타인의 연구 성과물을 사용하되 그의 견해나 입장을 오도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글에 그의 입장이나 이론을 도입할 경우 그것이 그의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표절은 이러한 공동 탐구의 규범을 어기는 행위이다. 따라서 표절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저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이기도 하다.**

일정한 규범에 따른 학술적 성과물의 사용은 우선적으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함이지만, 이 외에도 공동 탐구 혹은 학술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윤리적 사용을 통해 소유권이 인정되면 개인들은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이로써 공동 탐구가 활성화되어 학술 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절은 학술 공동체의 적으로 간주된다.** 표절은 개인의 소유권을 왜곡시켜 공동 탐구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표절 당사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나 법적 책임의 위험성에 더하여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도 표절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며 문제이다. 더욱이 표절을 통해 어떤 개인의 창작물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편취하게 되면, 이익 침해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제재도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 표절이란 무엇인가?

표절은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하지만 표절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무엇인지는 충분하게 이해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학생들이 표절을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로 이해하거나 혹은 이러한 행위가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이해하곤 한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 표절에 해당하며,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의도적 표절과 결과적 표절로 표절의 종류를 나누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만으로는 표절의 위험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표절(plagiarism)’은 통상 라틴어 ‘plagiari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말은 ‘노예도둑’ 혹은 ‘아이들을 유괴하는 해적들’을 뜻했다. 표절이 아동 유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은 연구자가 연구에 들이는 노고를 산고(産苦), 즉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유하는 데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연구자의 연구 결과인 학술 자료들은 연구자가 산고를 겪고 난 아이, 즉 ‘정신적 아이’이다. 그러니 아이를 훔치는 유괴 행위는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행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를 훔치는 것이 말 그대로 유괴라면,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것은 표절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동 유괴를 고의성의 유무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비윤리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신적 아이를 유괴하는 표절 역시 고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글쓰기 가이드북에 따르면, 표절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거짓말, 속임수, 도용의 방법을 동원하여 출처도 밝히지 않고서 정보, 아이디어, 말들을 자신의 것인 양 행세하는 행위로 정의된다.<sup>1)</sup> 그러나 고의나 의도가 표절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누군가의 정신적 아이를 훔치는 모든 경우를 표절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특별한 의도 없이 인용표기를 하지 않았거나, 무의식적으로 특정 글의 일부분을 변형, 수정하여 자신의 글인 것처럼 했을 경우도 모두 표절인 것이다. 따라서 표절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최근 국내의 몇몇 대학들의 윤리 강령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이 윤리 강령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된다.<sup>2)</sup>

그러나 표절의 기준이 반드시 타인의 연구 결과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자신의 저작물일지라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것’<sup>3)</sup> 또한 표절에 해당하며, 우리는 이것을 흔히 ‘자기 표절’이라 부른다. 이 외에도 미국에서는 인용표기 없이 4-8개 이상의 단어를 있는 그대로 옮기면 학술상의 표절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표절의 기준이 다양하다고 해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무엇이 표절인가’의 문제는 어떤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별로 분석하고 판단함으로써 표절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정해가는 것이 표절 문제를 다루는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 • 무엇이 표절인가?

통상적으로 표절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지목되는 것은 교육 기관이다. 특히 글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대학 교육 과정에서 표절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절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표절의 유형과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표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전면적 표절'이며, 다른 하나는 '짜깁기식 표절'이다. '전면적 표절'은 타인의 텍스트 전체 혹은 장(章)이나 절(節)과 같은 텍스트의 일부를 그대로 가져와 자기가 쓴 글처럼 속이는 유형이며, '짜깁기식 표절'은 출처를 표시하는 인용 없이 타인의 자료 내용들을 자신의 글과 뒤섞어 글 내용 모두가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꾸미는 유형이다.

전면적 표절은 발각되기 무척 쉬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느끼는 죄책감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짜깁기식 표절은 의도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표절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게다가 짜깁기식 표절은 방식이 매우 교묘해 발각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표절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지적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표절의 유형을 잘 파악하여 스스로 표절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1) 텍스트 전체를 그대로 따오기 - 전면적 표절

참고자료 1

[(알키비아데스)에서 기술과 얽은 어떤 관계인가?

©문과대학 철학과 홍길동

플라톤은 대화편 〈알키비아데스〉에서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사실 이 말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강조했던 말이다. 이 두 철학자에게 이 말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이 말이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왜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인가? 이 말에서 '너'는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 자신을 알라'는 대화자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인간의 자기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다.

(이하 내용 생략)

표절 사례 1

〈알키비아데스〉에서 기술과 얽은 어떤 관계인가?

©인문과학계열 전우처

플라톤은 대화편 〈알키비아데스〉에서 '너 자신을 알라(Gnothi Seauton)'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사실 이 말은 플라톤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도 강조했던 말이다. 이 두 철학자에게 이 말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이 말이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왜 '인간의 자기 인식'이라는 주제를 표현하는 것인가? 이 말에서 '너'는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너 자신을 알라'는 대화자인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인간의 자기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다.

(이하 내용 생략)

⇒ 참고자료와 표절사례를 비교해보자. 금방 확인되겠지만, 다른 것은 ㉠와 ㉡뿐이다. 이 학생은 의도적으로 다른 학생이 쓴 글을 소속과 이름만 바꾸어 제출한 것이다. 전면적 표절은 의도 없이 저지를 수 없는 지적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2) 짜깁기식 표절 1 - 원문의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옮겨오기

인용부호나 표시 없이 원문의 몇몇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짜깁기식 표절의 유형이다. 이 유형의 표절은 그 내용이 대개 상식적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발견된다. 다음은 이 유형의 표절 사례이다.

참고자료 2

②디오니소스 페스티벌이라는 고대의식은 오늘날 아주 인기 있는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Games: MMOGs)과 비슷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대의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플레이어들과 상호 작용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게임에서는 종종 삶과 죽음의 결과가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캐롤린 헨들러 밀러,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이연숙 외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6쪽.

표절사례1

원시 시대의 종교적 제의는 가장 오래된 놀이였다. 또한 놀이는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 왔다. 현대의 온라인 게임 역시 디지털화되었을 뿐, 그 자체로 놀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적 제의와 현대의 온라인 게임이 역사적 연관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①디오니소스 페스티벌이라는 고대의식은 오늘날 아주 인기 있는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대의 게임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플레이어들과 상호 작용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게임에서는 종종 삶과 죽음의 결과가 있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 이 학생의 원래 의도는 참고자료의 내용(②)을 자신의 글의 예시로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글에 인용 없이 원문을 그대로 옮겨와(㉠) 결과적으로 표절을** 범하게 되었다.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하고서도 인용표시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이 내용이 마치 글을 쓴 학생이 직접 생각해 낸 것처럼 보이게 된다. 그렇지만 디오니소스 페스티벌과 온라인 게임의 연관성은 상식적 수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원 저자의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용표시를 해야 하며, 그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3) 짜깁기식 표절 2 - 두 개 이상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거나 변형하기

참고자료 3

알버바슈에 따르면 ②기억은 개인이 간직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된다. 결국 개인기억과 집단기억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으며, 기억은 집단 존재의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바로 집단을 존재하게 하는 생명줄이라는 것이다.

제프리 K. 올릭, 『기억의 지도』, 강경이 옮김, 옥당, 2011, 19쪽.

참고자료 4

현실에 대한 개인적인 파악, 신념이나 욕망의 기능은 어디에서 멈추고, 정상적인 실험 대상자에게서 관찰되는 잘못된 기억과 기억상실증 환자의 작화증(잘못된 추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 ⑥기억의 완벽성은 정확성에 달려 있기보다는 추억과 지식을 우리 자신, 우리 환경, 특히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긴밀히 연관되게 유지하면서 그 추억과 지식을 변경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다. ⑦기억은 그저 단순한 창고나 저장소가 아니다. 기억은 질병의 표적인 그 소중한 균형을 보존하면서 정신현상의 중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란시스 위스타슈, 『우리의 기억은 왜 그토록 불안정할까』, 이효숙 옮김, 알마, 2009, 45쪽.

표절사례2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또한 사회 내에 존재하는 한, 개인의 존재는 결코 단독적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억 역시 사회적 맥락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①그래서 기억이 마치 개인이 간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의 가장 원초적인 기억조차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기억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것인 한, 완벽한 기억이라는 것이 사태의 정확한 기록일 수도 없다. 다시 말해 ②기억은 그저 단순한 창고나 저장소가 아니다. ③오히려 기억의 완벽성은 정확성이 아니라 추억과 지식을 우리 자신, 우리 환경, 특히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과 긴밀히 연관되게 유지하면서 변경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을 개인의 사적 소유물처럼 여기는 것은 기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다.

⇒ 이 학생은 인간의 기억을 연구한 두 개의 참고자료를 기억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글을 쓰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글 역시 **자료 원문의 구절을 인용 없이 그대로 따오거나 약간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표절을** 범하고 있다. 우선 원문 ㉔는 학생의 글 ㉑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출처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 학생은 자료 원문의 ㉒와 ㉓를 편의상 순서를 바꾸고 접속사를 넣음으로써 약간만 변형했을 뿐,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용 없이 타인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학생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상식적 수준이나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 별만한 것이 아님은 금방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의 내용을 자신의 글에 사용하고 싶다면, 정확한 인용 방법에 따라 인용 표시와 출처를 밝혀야만 한다.**

#### 4) 짜깁기식 표절 3 - 중요한 용어나 핵심 개념을 표절하기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에서 중요한 용어나 개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대표적인 짜깁기식 표절의 유형이다. 원문의 문장이나 구절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원문 내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인용 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표절에 해당한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 출간한 경우도 연구 표절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sup>4)</sup> 이 지침에서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어떤 텍스트들은 그 안에서 독특하게 표현된 개념이나 용어가 텍스트 전체의 핵심 내용을 대표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용어나 개념들은 텍스트 전체의 완성도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이러한 용어나 개념들을 인용 없이 차용하는 것은 원문 전체를 표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다음의 예에서 특수 용어가 표절되는 한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자.

#### 참고자료 5

역사와 철학을 동원하면 우리가 어째서 10만 종의 서로 다른 해조류보다 '호모 사피엔스'를 더욱 소중하게 다루는지를 보다 쉽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역사와 철학의 도움을 받아, 미지의 곤충 종 연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생물학 연구기금을 쓰면서도 인류에 대한 연구는 포기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역사와 철학의 도움을 받으면, ㉔**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작업하는 과학자가 어째서 그들의 발견물을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㉒**과학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에런 G. 필러, 「허리 세운 유인원, 김요한 옮김, 프로네시스, 2007, 34-35쪽.

#### 표절사례1

일반적으로 우리는 과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객관성이라 생각한다. 과학적 사실은 지역, 국가, 나이,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에 흔히 과학과 인문학을 객관성을 기준으로 나누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학의 경우 서양철학과 동양철학이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른 시각과 태도와 주장이 다르다. 더욱이 동양철학은 지역에 따라 중국철학, 한국철학, 인도 철학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객관성을 과학과 인문학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㉑**과학자 역시도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 따라 과학적 발견물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㉒**더욱이 인문학과 마찬가지로 과학 역시도 문화적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이 학생은 진화 생물학자 에런 필러의 글을 참고하여 객관성이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에런 필러가 사용한 **특정한 개념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표절을** 범하고 있다. 우선 이 학생은 ㉑ 부분에서 에런 필러의 입장(㉒)을 차용하고 있다. 또한 ㉒ 부분에서 '문화적 진공 상태'라는 에런 필러의 표현(㉓)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그들이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자의 태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는 다른 것이어서 결코 상식적 수준의 언급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문화적 진공 상태' 라는 표현은 과학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에런 필러가 사용한 그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이나 표현을 자신의 글에 사용하고 싶다면, “~에 따르면” 과 같이 누구의 생각이나 입장인지를 밝힐 수 있는 표현을 넣어야 하며, 출처 역시 밝혀야만 한다.**

이 외에도 글의 구성이나 구조를 무단으로 차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 또한 짜깁기식 표절에 해당한다. 출처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글의 구조나 형식은 저자가 특정 문제나 주제에 접근하는 독특한 사유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나 형식을 원용할 때에도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표절 외의 자료 오용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1) 원문의 내용을 곡해하기

자료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표절만이 아니다. **활용하는 자료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것도 표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료 내용의 곡해는 대개 시간에 쫓겨 글을 쓰게 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해 문맥과 맞지 않은 자료의 내용을 성급하게 인용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 보다 심한 경우는 자료의 내용 중에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은폐하여 자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비양심적일 뿐만 아니라 학문적 정직성을 위반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글을 쓰는 것은 글을 쓰는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며, 이러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참고하는 자료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한 학생의 글을 예로 들어 자료의 왜곡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6

공리주의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옳고 그름과 의무의 궁극적인 기준은 공리의 원칙(Principle of utility)라는 견해로서 이것이 주장하는 것은 아주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추구되는 도덕적 목적은 전체로서의 세계에 있어서 악을 뺀 가능한 최대의 선이라는 것이다. (중략)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바는 선과 악의 내용이 무엇이 되든간에 그것이 어떤 양적인 방식이나 혹은 적어도 수학적인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고 계산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④ **벤담(Jeremy Benda)은 이 점을 가장 명백히 인정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 등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쾌락과 고통에 대한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밀(John Stuart Mill)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도입하고자 했다. 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도입할 경우 공리주의적 기준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알기는 어려우며, 밀도 그 점을 명백히 한 적이 없었다.** ⑤

곡해 사례

④ **벤담(Jeremy Benda)은 일곱 가지 기준을 가지고 쾌락과 고통에 대한 쾌락 계산법을 제시하고자 한 반면, 밀(John Stuart Mill)은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반대함으로써 쾌락의 평가에 있어서 양뿐만 아니라 질도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프랑케나는 '그러한 것을 도입할 경우 공리주의적 기준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알기는 어려우며, 밀도 그 점을 명백히 한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⑥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프랑케나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밀보다 벤담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보고 있다.**

6. 윌리엄 K. 프랑케나, 『윤리학, 황경식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3, 86-87쪽.

⇒ 이 학생은 ④을 통해 참고자료의 ④와 ⑤의 내용을 간략히 진술하고, ⑥에서 프랑케나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결론 삼아 제시하고 있다. ④ 부분은 크게 지적할 만한 문제가 없으며, 인용이 정확히 이루어져 표절의



문제도 범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은 자료 해석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학생은 참고자료의 해석을 통해 프랑케나가 밀보다 벤담의 주장을 더 설득력 있게 본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는 이 학생이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참고자료 ㉡의 내용이다. 그러나 ㉡는 프랑케나가 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지, 벤담의 주장이 밀의 주장보다 더 설득적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의 프랑케나의 입장을 ㉠처럼 해석하는 것은 내용의 '왜곡' 인 것이다.

물론 내용의 왜곡에 따른 책임은 이 학생이 져야 하겠지만, 이 경우의 왜곡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문의 내용을 정확히 독해한다면, 이러한 실수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자료나 정보를 의도적으로 날조하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조작'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자료 활용의 두 원칙인 정확성과 정직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도 때로 자료의 내용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은 학문 공동체 내에서 바로 잡힐 수 있다. 하지만 '조작'은 이 두 원칙을 고의로 위배하는 것이며, 원칙의 위배 속에서 학문 공동체의 유대성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나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학술적 기만**이며, 그것이 초래하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발각 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 2) 공동연구 결과를 자기 업적으로 제출하기

여럿이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공동 연구 과정에서도 자료의 오용은 쉽게 발생할 수 있다. 팀을 기초로 한 연구는 팀원들 간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전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수업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연구라도,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독자성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전문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공동 연구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동 연구가 활발한 것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인데, 이러한 까닭에

과정에서 기여한 정도와 참여한 방식에 따라 저자들이 수행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한다. 예를 들어, 교신 저자, 제1저자, 제2저자 등으로 참여 연구자들의 역할을 구분한다. 만일 연구는 공동으로 진행하지만 성과물은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면, 참여한 연구자들 각자는 자신만의 생각에 기초해 논문을 쓰게 된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각자 강조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해석하여 결과로 도출하는 과정이나 단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조별 연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공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별 연구의 경우, 조원들의 역할과 기여를 보고서에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좋다. 이와는 달리 **조별로 과제를 수행하지만 개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이 보고서들은 각자가 자신의 생각에만 기초해서 작성해야만 한다.** 같은 실험이나 토의를 거쳤다고 할지라도 근거들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들은 제각기 다를뿐더러 이에 따른 최종 결론들도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 역할에 따라 수행된 다른 조원의 생각이나 자료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베끼듯 타인의 성과를 사용하는 것은 자료의 올바른 활용이 될 수 없다. 공동 연구를 수행한 같은 조원들이라도 서로의 역할과 그에 따른 성과를 인정해야만 자신의 독자성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3) 동일 과제 내용을 이중으로 제출하기

학술 공동체 내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는 행동 중 하나가 논문 중복게제이다. 논문 중복게제란 이미 발표한 동일한 내용의 글을 마치 새로운 글인 것처럼 마냥 다시 발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논문 중복게제의 학생판 버전이 이중 과제 제출이다.** 서로 다른 강의지만 때때로 유사한 주제나 연구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 때 한 수업에 제출한 보고서를 약간 수정하여 다른 수업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이중 과제 제출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도입이나 결론의 내용을 약간 바꾸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을 문제라고 여**

기지 않은 하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태도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새로운 결과물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학문적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동일한 주제라도 다양하게 접근해보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memo

주석

- 1) Gordon Harvey, Writing with sources: A guide for students, Hackett Pub Co Inc, 1998, p.29
- 2) 카이스트 연구진실성 위원회 규정, 제 1장 제 4조(용어의 정의).
- 3) 이인재외,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과 올바른 글쓰기」, 물리학과 첨단기술, April 2008, p.18
- 4) 서울대학교 연구지침, 제 3장 제 2절 3.(표절).
- 5) 윌리엄 K. 프랑케나, 『윤리학』, 황경식 옮김, 철학과 현실사, 2003, 86-87쪽.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rounded corners,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outlined in a thin grey line and occupies the left side of the page.